

우리 나라 여성을 위한 모자 패턴의 개발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宋美令* · 吳順姬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코오롱 산업연구소

A Study on Developing Hat Patterns for Korean Young Women -for Women in Their Twenties -

Mi-Ryoung Song* and Soon-Hee Oh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 Duck Women's University*
Fasion Institute of Kolon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선행 연구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Hat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fashion accessory business and Their importance is increasing year by year. Their importance is increasing not only as a means of accessory but also as a means of sportswear due to the leisure-sports boom of the 90's.

As ha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nd ready-made, demand for comfortable and easy-fitting hats are increasing. Being an piece of apparel, fitting is very important factor in hats as well as in other forms of clothing. But many hat-wearers complain of dissatisfaction of fitting of their hats. In addition to this, another problem is that most hat designs have been flown in from the West without inspection of their fits. Designs to fit the Korean face and head have not been developed proper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well-fitting hat pattern design for Korean young women. After taking actual measurements of 170 young womens, a size system was organized for developing patterns for different size groups.

I. 서론

모자의 발생은 외부로부터의 두부 보호 등 실용적인 면이 강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적인 권위, 신분 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고 근현

대에 와서는 의상의 액세서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모자는 여성에게는 물론 남성에게도 일반화 되어 장식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스포츠,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 유행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이 모자가 기성화, 대중화됨에 따라 머리에 잘 맞고 쓰기 편한 모자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모자 착용자의 다수가 모자착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실정이며 서구에서 유행하는 모자의 디자인들이 유입되어 제작되는 과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두형에 맞는 모자의 패턴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안영실(1995)과 문남원(1998)은 연구에서 계속에 의한 두형의 분석으로 모자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제공하였으나 이를 응용한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여성의 머리에 잘 맞고 쓰기에 편한 모자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20~29세 여성의 두부를 계속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평균 두형을 찾아내어 알맞은 모자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모자 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모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혜은(1995)은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모자의 상징성에 대하여 권력과 명예의 상징, 직업에서의 상징과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원인들을 연구하였으며 이선영과 김득숙(1990)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머리형태와 모자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복식사적인 고찰을 통해 여러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다. 김경희(1990)는 서양모자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모자의 종류 및 디자인, 용도를 문헌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은영자와 이정순(1992)은 역사적 사건이나 예술사조에 따른 모자의 착용상태와 형태의 변화를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알아보았다. 김영자(1970)는 서양모자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배경과 의상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우리 나라 여성의 모자에 대한 태도를 설문지 분석으로 학술적 정리자료를 제공하였다. 안영실(1995)은 성인여성의 두부를 계속, 분석하

고 두부 형태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였고, 문남원(1998)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두부 계속을 통하여 두부의 특징과 형태를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들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모자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모자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 역시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들 및 모자 패턴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문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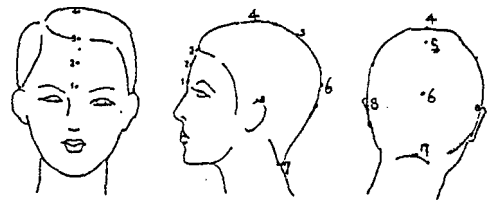
1. 계속대상

계속대상은 FIK와 동덕여대에 재학중인 20세에서 2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1998년 3월 20일부터 1998년 5월 4일까지 170명을 계속 실시하였다. 이 중 자료가 미비한 6명을 제외한 164명의 계속치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계속항목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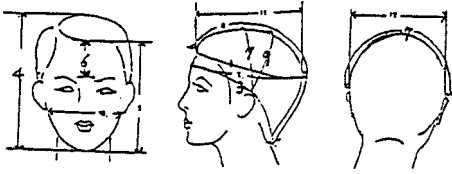
계속은 마틴(Martin)의 인체계측법, 데니스 드레허(Denise Dreher)의 모자제작을 위한 계속 기준선과 공업진흥청 KS A 7003 및 KS A 7004에 설정된 계속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계속항목은 모자 패턴 제작과 두형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15항목을 선정하였다. 특히 모자제작이 머리둘레 치수에 기초하여 제작된다는



- | | |
|----------|----------|
| 1. 눈살점 | 5. 머리가마점 |
| 2. 이마중간점 | 6. 뒤통수점 |
| 3. 이마시작점 | 7. 뒷머리끝점 |
| 4. 머리마루점 | 8. 귀윗점 |

<그림 1> 계속 기준점



- 1. 머리둘레A 5. 얼굴길이 9. 양귀윗점-가마길이
- 2. 머리둘레B 6. 이마길이 10. 귀구슬점사이너비
- 3. 머리둘레C 7. 좌우길이 11. 머리뚜께
- 4. 머리길이 8. 전후길이 12. 머리너비

<그림 2> 계측항목 및 부위

점과 모자형, 모자 쓰는 방법의 변화에 따라 크라운의 모양과 머리둘레 치수가 다르다는 전제로

머리둘레 항목을 3가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1>은 계측기준점음, <그림 2>는 계측항목 및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3. 분석

자료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항목별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치수체계와 항목간의 관계를 분산분석하였고 이로써 모자제작에 필요한 치수체계를 3그룹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처리프로그램으로는 SPSS를 사용하였다

4. 모자 패턴 설계

계측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머리둘레를 구하고 이를 미국과 일본의 연구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한국인의 두형에 맞는 모자들을 제작하였다. 모자들에 모자제작에 필요한 기준점

<표 1> 계측기준점과 계측항목

		내 용
계 측 점	1. 머리마루점	머리 부위의 정중선에 있어서 위로 가장 두드러진 점
	2. 뒤통수점	뒤통수의 정중양선에서 가장 뒤쪽으로 두드러진 점
	3. 턱끝점	정중선상의 아래턱뼈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두드러진 점
	4. 눈살점	정중선상의 양 눈썹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5. 이마시작점	이마부위의 정중선에 있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점
	6. 뒷머리끝점	눈살점과 이마 시작점의 중간 지점
	7. 귀구슬점	귀구슬 부위중 가장 두드러져있는 부위에서 바깥 아래끝점
	8. 젓꼭지점	젓꼭지의 가운데점
계 측 항 목	1. 머리둘레 A	이마 시작점부터 뒤통수점까지의 둘레
	2. 머리둘레 B	이마 중간점부터 뒤통수점까지의 둘레
	3. 머리둘레 C	이마 중간점부터 귀윗점을 지나 뒷머리 끝점까지의 둘레
	4. 머리길이	머리 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5. 얼굴길이	이마 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6. 이마길이	이마 시작점에서 눈살점까지의 수직거리
	7. 좌우길이	머리 마루점을 지나는 양쪽귀에서 1cm 올라간 지점 사이의 거리
	8. 전후길이	이마 시작선에서 뒷머리 끝점까지의 거리
	9. 양귀윗점-가마	머리 가마를 지나는 좌우 귀윗점 사이의 거리
	10. 귀구슬점사이너비	좌우 귀구슬 사이의 직선거리
	11. 머리뚜께	이마 시작점에서 뒤통수점까지의 직선거리
	12. 머리너비	머리의 좌우측 가장 두드러진 부위 사이의 직선거리
	13. 신장	바닥에서 머리 마루점까지의 직선거리
	14. 체중	단위 kg
	15. 가슴둘레	양젓꼭지점을 수평으로 지나는 둘레

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연구용 모자의 디자인(트크, 베레, 고깔)으로 제안한 모자 패턴을 드레이핑하였다. 드레이핑의 결과를 다시 분해하여 평면패턴으로 전개하여 마스터 패턴화하였다.

5. 모자 제작

설계된 패턴을 이용하여 실물 모자를 제작하고 이를 표준치수의 모델에게 착용하여 외관 검사한다.

IV. 결과 및 고찰

<표 2> 계측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64

항목	M · S.D	M (cm)	S.D	Min (cm)	Max (cm)
1. 머리둘레 A		54.368	1.497	51.0	57.0
2. 머리둘레 B		55.530	1.295	53.0	58.0
3. 머리둘레 C		56.936	1.467	53.5	60.5
4. 머리길이		22.457	1.236	19.6	29.5
5. 얼굴길이		18.488	0.826	16.7	20.5
6. 이마길이		6.129	0.607	4.5	7.7
7. 좌우길이		30.084	1.321	27.1	33.0
8. 진후길이		31.834	1.651	28.0	36.0
9. 양귀윗점-가마		32.416	1.777	21.0	37.5
10. 귀구슬접 사이 너비		11.505	1.810	9.9	12.6
11. 머리두께		17.695	0.633	16.4	19.3
12. 머리너비		15.618	0.681	10.6	16.8
13. 신장		162.19	3.850	150.0	174.0
14. 체중		50.20	4.810	40.0	63.0
15. 가슴둘레		82.759	3.974	72.0	92.0

<표 3> 계측치와 1992년 국민체위 조사 연구와의 비교

항목	M · S.D	계 측 치		1992년 국민체위조사	
		M (cm)	S.D	M (cm)	S.D
머리둘레 B		55.530	1.295	55.3	1.5
머리길이		22.457	1.236	21.7	1.0
얼굴길이		18.488	0.826	18.7	0.8
머리두께		17.695	0.633	17.7	0.7
신장		162.190	3.850	159.2	4.9
가슴둘레		82.759	3.974	82.2	4.8

<표 4> 계측치간의 상관계수

(단위: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머리둘레 A	1.000														
2. 머리둘레 B	.882	1.000													
3. 머리둘레 C	.506	.589	1.000												
4. 머리길이	.135	.135	.308	1.000											
5. 얼굴길이	.142	.211	.371	.336	1.000										
6. 이마길이	.063	.126	.262	.217	.336	1.000									
7. 좌우길이	.258	.248	.165	.217	-.015	-.004	1.000								
8. 전후길이	.239	.351	.042	.024	-.152	-.290	-.004	1.000							
9. 양귀윗점-가마	.209	.218	.062	.155	-.073	-.053	.574	.285	1.000						
10. 귀구슬 사이너비	.116	.063	.186	-.007	.043	-.073	-.004	.070	.065	1.000					
11. 머리두께	.428	.570	.346	.121	.204	-.073	-.016	.398	.010	-.030	1.000				
12. 머리너비	.296	.230	.186	.156	.033	.092	.318	-.046	-.070	.102	-.253	1.000			
13. 신장	.130	.122	.164	.112	.123	-.142	-.030	.126	.191	.065	.010	-.070	1.000		
14. 체중	.157	.206	.301	.246	.266	.011	.011	.129	.476	.110	.095	.102	.476	1.000	
15. 가슴둘레	.208	.208	.308	.201	.121	-.129	.278	.173	-.191	.069	.147	.156	.191	.751	1.000

의 頭身의 비율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2) 계측항목 상호간의 상관관계

<표 4>는 전 항목과 계측치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상관계수의 유의범위는 다음과 같은 단 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0.700 이상 : 높은 상관

±0.500~±0.699 : 중 정도의 상관

0.500 이하 : 낮은 상관

이상에서 보면 머리둘레 A, B간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머리둘레 C는 A, B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귀윗점-가마와 좌우길이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길이항목에서는 얼굴길이와 머리길이, 이마길이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고, 머리두께는 머리둘레 B와 상관관계

를 갖고 있었다. 귀구슬 사이 너비항목은 다른 어떤 항목과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자제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가슴둘레와 체중은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신장과 체중은 그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 20대 여성들의 체중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모자제작을 위한 치수분석

모자 패턴 제작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머리둘레 B와 머리둘레 C의 두 가지 기준항목별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산분석하였다.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경우 머리둘레 B의 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치수체계를 Small, Midium, Large로 나누었고 그 분포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별 분포

Size(cm)	Frequency(명)	Percentage(%)
55.5~55.0 (S)	68	41.5
55.1~56.5 (M)	32	37.8
56.6~58.0 (L)	34	20.7
Total	164	100

<표 6>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치수	Small		Medium		Large	
		M	S.D	M	S.D	M	S.D
머리둘레 A		53.041	.957	54.826	.794	56.188	.781
머리길이		22.181	1.025	22.484	.909	22.962	1.860
얼굴길이		18.290	.799	18.505	.738	18.853	.956
이마길이		6.099	.601	6.089	.607	6.262	.619
좌우길이		29.762	1.152	30.219	1.405	30.482	1.364
전후길이		31.379	1.420	31.869	1.672	32.676	1.745
양귀윗점-가마		32.125	1.269	32.410	2.246	33.009	1.570
귀구슬 사이 너비		11.250	.648	11.565	.586	11.909	3.794
머리두께		17.295	.490	17.894	.554	18.129	.574
머리너비		15.428	.460	15.631	.893	15.976	.428

<표 7>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의 분산분석(ANOVA)

항목	분산분석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value	Significance
머리둘레 A		249.356	2	122.678	164.595	.000***
머리길이		13.892	2	6.946	4.758	.010*
얼굴길이		7.220	2	3.610	5.587	.005*
이마길이		.763	2	.382	1.036	.357
좌우길이		13.592	2	6.796	4.041	.019*
전후길이		38.261	2	19.131	7.586	.001*
양귀윗점-가마		17.710	2	8.855	2.869	.060
귀구슬 사이 너비		10.186	2	5.093	1.565	.212
머리두께		19.708	2	9.854	34.719	.000***
머리너비		6.835	2	3.418	7.992	.000***

*P<0.05 **P<0.01 ***P≤0.001

머리둘레 B를 기준으로 한 치수체계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고 그 결과 귀구슬 사이의 너비항목은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귀구슬 사이의 너비항목은 모자착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가 아니므로 패턴 제작시 사이즈 체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추측된다.

머리둘레 B를 기준으로 한 치수체계의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이마길이, 양귀윗점-가마, 귀구슬 사이 너비의 3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치수체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들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경우 머리둘레 C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체계를 S, M, L로 나누면 <표 8>과 같고 각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9>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귀구슬 사이 너비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경우의 분산분석결과는 <표 10>에서와 같은데 전후 길이와 양귀윗점-가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표 8>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별 분포

Size(cm)	Frequency(명)	Percentage(%)
53.5~56.0 (S)	53	32.3
56.1~57.5 (M)	60	36.6
57.6~60.5 (L)	51	31.1
total	164	100

<표 9>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치수	Small		Medium		Large	
		M(cm)	S.D	M(cm)	S.D	M(cm)	S.D
머리둘레 A		53.411	1.243	54.448	1.327	55.269	1.348
머리길이		22.251	.8375	22.785	1.619	22.390	.962
얼굴길이		18.115	.769	18.512	.718	18.847	.850
이마길이		5.892	.590	6.195	.495	6.296	.676
좌우길이		29.821	1.236	30.082	1.494	30.361	1.146
전후길이		31.891	1.573	31.778	1.551	31.839	1.862
양귀윗점-가마		32.287	1.687	32.312	2.149	32.673	1.334
귀구슬 사이 너비		11.064	.571	11.433	.667	12.049	3.051
머리두께		17.445	.573	17.735	.605	17.906	.649
머리너비		15.434	.478	15.717	.612	15.694	.884

<표 10>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한 치수체계의 분산분석(ANOVA)

항목	분산분석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value	Significance
머리둘레 A		90.262	2	45.131	26.413	.000***
머리길이		11.647	2	5.824	3.951	.021*
얼굴길이		13.979	2	6.989	11.570	.000***
이마길이		4.651	2	2.325	6.760	.002**
좌우길이		7.580	2	3.790	2.205	.114
전후길이		.357	2	0.178	0.065	.937
양귀윗점-가마		4.895	2	2.447	0.773	.463
귀구슬 사이 너비		25.702	2	12.851	4.068	.019*
머리두께		5.669	2	2.835	7.640	.001**
머리너비		2.675	2	1.337	2.949	.055

*P<0.05, **P<0.01, ***P≤0.001.

경우와는 달리 머리둘레항목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둘레 B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경우 S size

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고, 머리둘레 C를 기준항목으로 정할 경우 M size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둘레 C를 중심으

<표 11> 크라운 부분 비교 (단위:cm)

항목 나라	머리둘레	머리두께	머리너비
한국	56.9	19.3	16.4
미국	57.9	19.7	16.4
일본	55.2	18.9	16.1

로 한 패턴 제작이 M size 중심으로 설계되므로 모자 패턴 제작에 머리둘레 C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모자패턴 설계

1) 크라운 비교

머리둘레 C를 기준으로 본 연구와 미국(Denise Dreher, 1981), 일본(일본성인, 1985)의 평균 치수를 크라운 부분에서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부분의 모자 패턴이 외래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비교는 의미있는 일이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치수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일본의 경우 모든 치수가 가장 작

게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의 체형과 신체조건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결과이다.

2) 모자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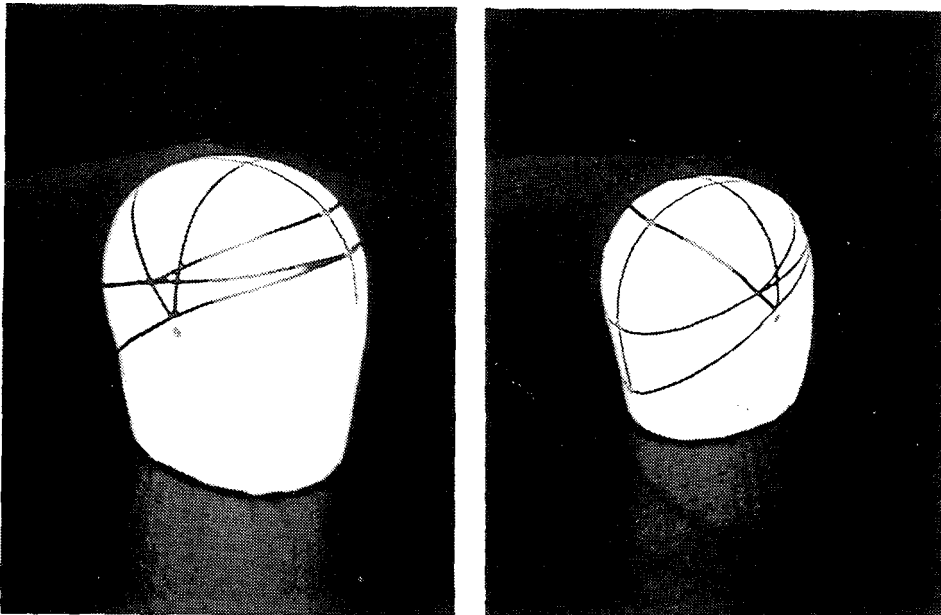
패턴 제작에 앞서 모자들의 제작을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치수와 비슷한 미국의 기성 모자들을 사포로 다듬고 형을 다시 잡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치수를 확인한 후 완성하였다. 여기에 라인테이프로 기준선과 기준점을 표시하여 패턴제작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모자들과 계측선은 <그림 3>과 같다.

3) 모자패턴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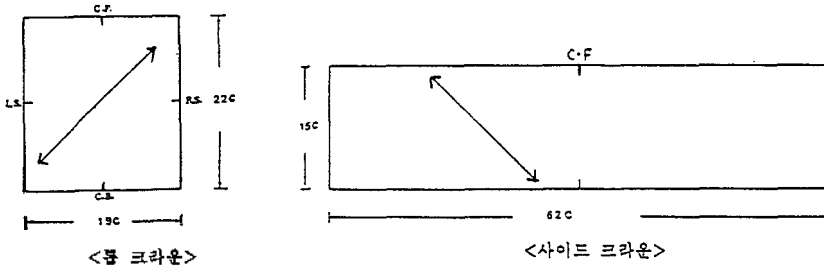
여러 가지 모자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기본적인 패턴에 해당되는 모자로 토크, 베레, 고깔을 선정하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 제작의 방법은 모자들 위에서 드레이핑하고 이를 다시 분해하여 평면패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크

① 드레이핑에 필요한 머슬린을 <그림 4>와 같이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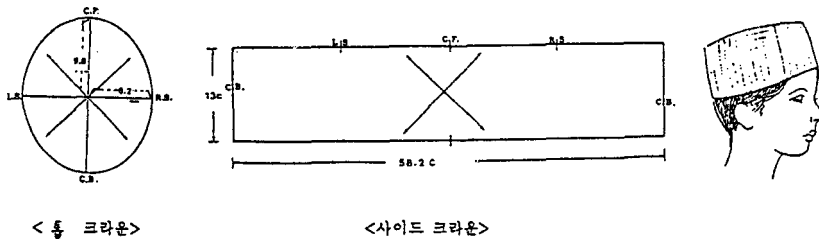


<그림 3> 모자들과 계측선



뚝 크라운 : {머리너비+5cm(여유분)} × {머리둘레+5cm(여유분)}
 사이드 크라운 : {디자인에 따른 토크높이+3cm(여유분)} × {머리둘레+3cm(여유분)}

<그림 4> 토크의 머슬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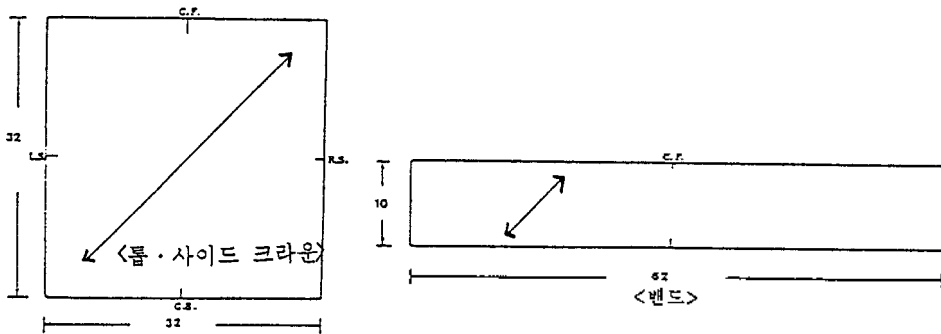


<그림 5> 토크의 완성 패턴

- ② 사이드 크라운용으로 준비한 머슬린에 Center Front(C·F)를 표시한다.
- ③ 사이드 크라운용으로 준비한 머슬린 Center Front 한 쪽을 모자틀의 이마 중심점에 드레이핑 핀으로 고정시킨다.
- ④ ③을 기준선 머리둘레를 따라 핀을 꽂으며 고정시켜 Center Back을 정하고 이를 떼어 내어 C·F, L·S, R·S, C·B을 표시하고 정리한 후 C·B을 핀으로 연결한 뒤 이를 다시 모자틀에 씌운다.
- ⑤ 탑 크라운용 머슬린에 기본 크라운을 그려 놓고, 사이드 크라운용 머슬린에 C·F, L·S, R·S, C·B을 맞추어 탑크라운의 완성 선을 정한다.
- ⑥ ⑤를 다시 분해하여 기준선을 확인한 후 평면 패턴으로 옮겨 완성패턴을 제작한다.
- ⑦ 완성패턴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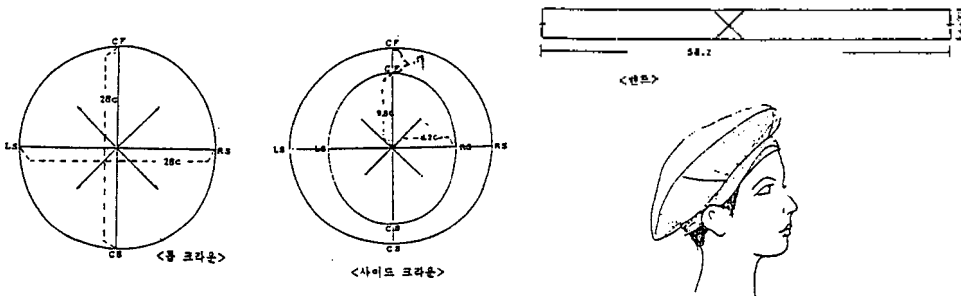
(2) 베 레

- ① 드레이핑에 필요한 머슬린을 <그림 6>과 같이 준비한다.
- ② 밴드용으로 준비한 머슬린에 Center Front(C·F)를 표시한다.
- ③ 밴드용으로 준비한 머슬린 Center Front를 모자틀의 이마 중심점에 드레이핑 핀으로 고정시킨다.
- ④ ③을 기준선 머리둘레를 따라 핀을 꽂으며 고정시켜 Center Back을 정하고 이를 떼어 내어 C·F, L·S, R·S, C·B을 표시하고 정리한 후 C·B을 핀으로 연결한 뒤 이를 다시 모자틀에 씌운다.
- ⑤ 사이드 크라운용 머슬린에 기본 크라운을 그려 놓고, 시점 0.7cm를 남기고 자른 다음 시점부분에 돌아가며 가위밥을 준다.
- ⑥ 밴드위에 C·F, L·S, R·S, C·B을 맞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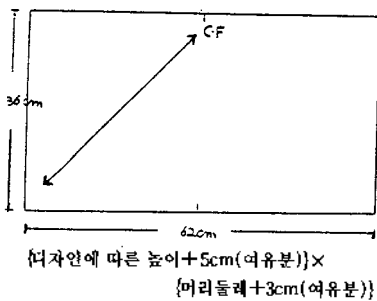


톱·사이드 크라운 : {머리너비+15cm(여유분)} × {머리둘레+15cm(여유분)}
 밴드 : {디자인에 따른 높이+3cm(여유분)} × {머리둘레+3cm(여유분)}

<그림 6> 베레의 머슬린 준비



<그림 7> 베레의 완성패턴



<그림 8> 고깔의 머슬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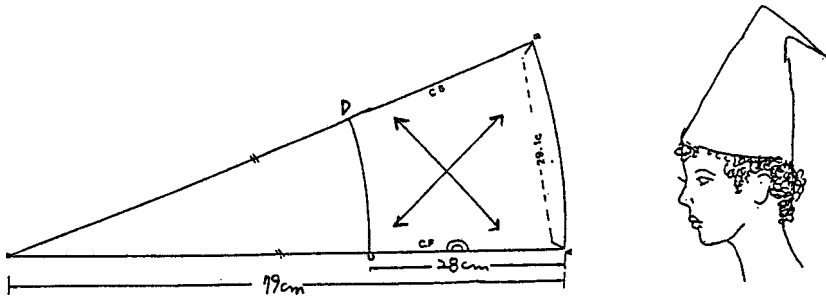
어 사이드 크라운의 완성선을 정한다.

- ⑦ ⑥위에 탑크라운용 머슬린을 겹쳐 놓고 라인태임으로 원하는 디자인에 따른 완성선을 정한다.
- ⑧ ⑦을 정리하여 평면패턴으로 완성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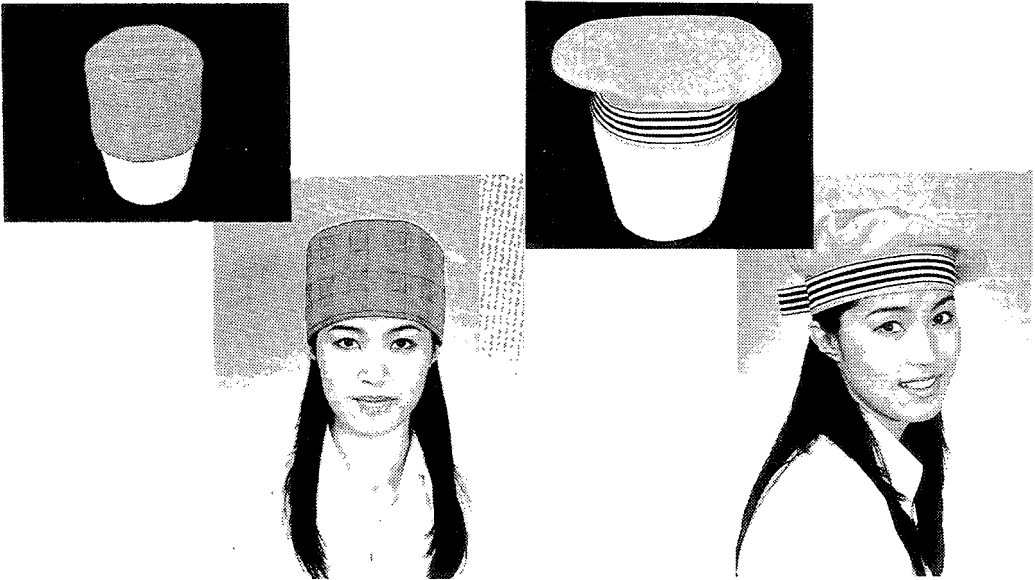
는 <그림 7>과 같다.

(3) 고 깔

- ① 드레이핑에 필요한 머슬린을 <그림 8>과 같이 준비한다.
- ② 준비한 머슬린에 Center Front(C·F)를 표시하고 Center Front 한 쪽을 모자들의 이마 중심점에 드레이핑 핀으로 고정시킨다.
- ③ 탑부분을 움직이면서 원하는 각도와 형태를 나오게 하고, 이를 유지시키면서 다음의 과정을 진행한다.
- ④ ③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준선 머리둘레를 따라 핀을 꽂으며 고정시켜 Center Back을 정한다.
- ⑤ ③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고깔의 정점을 향하는 Center Back(D)을 표시한다.



<그림 9> 고깔의 완성패턴



<그림 10> 토크

<그림 11> 베레

⑥ 이를 모자들에서 떼어내 Center Front를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서 고깔의 각도에 맞게 패턴으로 정리한다.

⑦ 정리하여 평면패턴으로 완성한다. 이는 <그림 9>와 같다.

3. 모자 제작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패턴을 이용하여 실물 제작하였다. 이를 평균치수를 가진 모델 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알맞은 치수로 편안하게 잘 맞았다. 그 결과는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V. 결 론

모자는 실용적,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상징적, 장식적 가치도 중요하게 가지는 개성 연출의 중요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에는 모자의 형태, 재질, 색상면에서 모두 그 표현이 풍부해지고 의복의 토탈 코디네이션 품목으로써 그 중요도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림 12> 베레

는 매우 보편화된 패션 악세사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모자를 포함한 머리장식에 대한 소비자들과 다양한 욕구의 증가로 두부의 치수체계와 각 디자인에 따른 정확한 패턴의 제작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계측에 의한 두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모자제작 및 구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제공되었으나 계측분석결과를 이용한 모자 패턴설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두부를 계측하고, 이를 자료로 삼아 우리 나라 여성의 머리에 알맞은 모자의 치수체계를 설정하고, 모자제작 가능한 모자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모자들을 기준으로 디자인에 따른 패턴 개발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거주 여성 중 20~29세 164명을 대상으로 두부계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와 1992년의 공진청 자료를 비교한 결과, 머리길이와 신장은 증가하였고, 머리둘레는 유사하나 얼굴길이가 짧아졌다. 머리둘레 측정치수를 디자인에 따라 머리둘레를 A, B, C로 세분화하여 측정한 결과 3치수간에 미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이즈 분포는 머리

둘레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치수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머리둘레 C를 모자 패턴 제작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모자 패턴의 기본 치수로 사용되는 머리둘레 C의 치수를 본 연구와 미국, 일본의 것과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는 56.9cm, 미국은 57.1cm, 일본은 55.2cm로 나타났고 특수한 용도의 모자를 제외한 모자 제작 치수에는 국가간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측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머리둘레 A, B, C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머리두께, 머리너비와 머리둘레 A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둘레 C로써 패턴제작을 할 때 이상의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계측치의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 20대 여성에 알맞은 모자들을 제작하였다.
5. 개발된 모자들을 기준으로 드레이핑하여 디자인에 따른 모자의 패턴 개발을 하였다.
6. 개발한 모자 패턴을 이용하여 실물 모자를 제작하였고, 평균치수에 해당하는 모델 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편안하게 잘 맞았다.

본 연구는 둘레항목과 치수항목만으로 이뤄진 패턴개발이므로 머리형에 따른 모자제작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1992.
- 김경화,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나인자, Byzantine 복식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노혜순, 모자예술 I, 장안전문대학 지역연구소 논문집 제 4집, 1995, 1996.
- 문남원, 모자디자인을 위한 성인여성의 두부형태 분석, 복식학회지, 1998.

- 정경자, 중세말기 France 복식에 관한 연구(13~14C 중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Denise Dreher, HATMAKING, MN : Madhatter, 1981.
- 김영자, 현대 한국 여자 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송미령, 입체재단, 서울: 수학사, 1995.
- 은영자, 이정순, 20세기 모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 가정대학 의생활과 논문, 1990.
- 이선영, 김득숙, 서양여성의 머리형태와 모자에 관한 고찰, 1990.
- 안영실, 모자 제작을 위한 두부형태의 분석(여대생을 중심으로), 한양여자전문대학 논문집, vol. 18, 1995.
- 박해숙, 제모의 기초와 응용, 서울: 진명문화사, 1976.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 연구보고서.
- Christima Probert, Hats in VOGUE, New York: Abbeville Press, 1981.